**과제문②**

**나만의 속도에 충실하라**

 마라톤 경기를 볼 때마다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의 선수들이 선두그룹을 형성하다가30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쯤이면10여 명으로 줄어들고 그 그룹도35킬로미터 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반으로 줄어듭니다.

평소 제가 마라톤 경기를 즐겨 보면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점은 선두그룹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온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퍽 드물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선수가 자기 속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레이스 끝까지 최고의 스피드를 유지하는 지구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구는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속도를 잊은 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속도를 낸다 싶으면, 어떻게든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만의 속도에 충실해야 함을 마라톤을 보면서 배웁니다.

**-[출처]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의 산문 「나만의 속도에 충실하라」 중에서 일부 발췌, 일부 단어 수정**

課題文②

**自分だけのペースを持ちなさい**

　いつもマラソン競技を見ると、人生と同じだなと思います。最初は、十数人の選手たちが先頭グループを成し、30キロメートル地点を通過すると、10人ほどまでに減り、そのグループも35キロメートル地点を通過すると、また半分に減ります。

普段私がマラソン競技を楽しみながら最も大事に思うところは、先頭グループで一番前を走る選手が優勝することは滅多にないということです。なぜでしょうか。それは、その選手が自分のペースを保たず、他の選手のペースに自分のペースを合わせたからです。マラソン選手に最も求められることは、レースの最後まで最高のスピードを維持する持久力です。そのためには、自分のペースを失わないことが大事です。

これは選手だけに限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スピード社会を生きる今日（こんにち）の私たちにも求められています。私たちは、自分のペースを忘れたまま、他の人が自分よりペースが速いと、何とかそのペースに追いつこうとします。自分が進むべき目的地に近くなるためには、自分のペースが大事であることをマラソンを見て学びました。

**-[引用] 『私の人生で勇気をくれた一言』, 鄭浩承の散文「自分だけのペースを持ちなさい」一部抜粋及び一部単語修正**